

전주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 규제 완화

한옥마을 주민 합동소방훈련 실시

시, 음식 품목·층수 제한 등 확대 허용 방안 검토... 다양한 먹거리 제공·지역 상권 활성화 등 기대

전주시가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대표 관광지 전주한옥마을과 관련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 검토에 나섰다.

이에 전주시는 '전주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 음식점 허용 품목 제한을 해제하는 등 새로운 구상을 정비하고 있다.

현재 검토 중인 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 규제 완화 대상으로는 음식 품목 및 층수 제한 등이다.

시는 그간 전주한옥마을 내 음식점

에서 전통음식만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나, 최근 관광트렌드가 음식 체험(맛집 탐방)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전통음식뿐 아니라 일식과 중식, 양식 등 모든 음식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여기서, 조리 시 냄새가 심한 '꼬치구이, 프랜차이즈(커피숍, 제과점, 제빵점)'에 대하여는 판매 제한 '유지'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이를 통해 시는 관광객에게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해 한옥마을을 활성화해

기여하고, 국제적 관광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또 현재 태조로와 기린로 일부 대지에 한해 지상 2층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그 외 지역은 지상 1층으로 돼 있는 한옥마을 건축물 층수 제한도 2층으로 확대 허용, 지하층까지 허용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 변경 기준을 수립하기 위한 '전문통화구역 지구단위계획(정비) 변경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지난 2003년 도입된 전문통화구역(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이 다양한 기준 및 절차 등으로 다소 경직되게 운영돼왔으나, 앞으로는 트렌드에 맞는 관광 먹거리를 제공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방향을 전환하고자 한다"며 "한옥마을의 고유성과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지구단위계획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 한옥마을사업소, 화재 발생 초기 대응 실습 위주 훈련 진행

전주시 한옥마을사업소는 한옥마을 내 완판본문화관 일원에서 직원과 한옥마을 주민, 민간위탁시설을 대상으로 '한옥마을 합동소방훈련'을 지난 8일 실시했다.

교통119안전센터와 함께 진행된 이날 훈련에서 참석자들은 소방안전관리자의 지휘 아래 △화재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상황전파 △119 통보요령 △대피요령 △초기 진화 방법 △소화기 사용법 등을 배우고 익혔다.

특히 소방훈련에서 참여한 주민과 문화시설 관계자들은 가상의 건물에 소화기를 분사해보는 등 화재시 취약

한 한옥마을 내 목조건물을 대상으로 화재 발생 초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실습 위주의 훈련 진행했다.

이에 앞서 한옥마을사업소는 지난 4월에도 교통119안전센터와 합동으로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김성수 전주시 한옥마을사업소장은 "예상치 못한 화재사고에 대비하고 화재 시 신속하고 정확한 초기대응을 위해서는 평상시 철저한 준비와 훈련이 매우 중요하다"며 "소방훈련을 통해 한옥마을 내 주민 및 직원들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1593 전주별시' 재현행사 열린다

19일 과거시험·전통무예시연·방방례·유가행렬·사은숙배 진행

전주시가 임진왜란 당시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 치러졌던 과거시험인 '전주별시'를 재현한다.

'전주별시'는 임진왜란이 발발하고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자 이듬해인 1593년 선조가 세지었던 광해군을 전주로 내려보내 실시한 과거시험이다.

시는 오는 1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주전문통화연수원과 경기전 등 전주한옥마을 일원에서 '제5회 1593 전주별시 재현행사'를 진행

한다.

이날 행사는 △과거시험(국궁, 한글 글짓기·동시·시조, 한시) △전통무예시연 △방방례(시상식) △급제자 유가행렬 및 사은숙배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과거시험의 경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전접수를 통해 인원을 제한해 운영된다.

국궁(國弓)은 공도교육을 이수한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참가하며, 개

인전과 단체전으로 나누어 실시된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한시백일장(漢詩白日場)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지상(紙上)백일장' 방식으로 진행된다. 올해 시제는 '감전주한옥촌관광(感全州韓屋村觀光)'이고, 압운은 시(時), 지(知), 기(基), 희(熙), 치(馳)이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는 새롭게 한글 글짓기 과목이 신설돼 초등부(동시·시조)와 성인부(시조)로 나누어

진행된다.

과거시험이 종료된 이후에는 전통무예 시연과 과거급제자 시상식인 '방방례(放榜禮)'가 진행되며, 급제자에게는 시상상과 어사화가 수여된다.

시상식 이후에는 과거급제자가 어사화를 머리에 꽂고 채집관, 선배, 친족을 방문하는 '유가행렬(遊街行列)'이 향교길과 은행로, 태조로, 경기전으로 이어진다. 유가행렬에서는 금안노인복지관 취타대와 한옥마을 풍물패의 멋진 공연도 즐길 수 있으며, 급제자는 경기전에 도착해 왕(태조어진)에게 과거 급제를 알리고 감사 인사를 전하는 '사은숙배(謝恩肅拜)'를 행하게 된다.

/김영태 기자



전북경찰청은 최근 북한의 지속된 도발에 대비해, 각 경찰서 '작전부대, 경찰관기동대'에 대해 출동 준비태세를 점검하고, 작전능력 향상을 위해 실질적인 교육·훈련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주동물원 드림랜드 운영 중단

전주동물원 내 놀이기구인 드림랜드의 운영을 중단하고 종합적인 안전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10일부터 드림랜드 운영을 중단하고 관련법에 따른 인증 전문검사기관을 통해 정밀안전점검 계획을 내비치며, 놀이기구 고장 및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인명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시는 정밀안전점검 결과를 토대로 안전대책을 보강한 후 시설을 재운영하거나 계획을 해지할 지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드림랜드 운영중단으로 인해 다소간 시민들의 불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영태 기자

제3회 책임수사관 인증서 수여... 전북 경찰 2명 선발

경찰청(국가수사본부)에서 선발된 책임수사관 2명에 대해 강황수 전북경찰청장은 '책임수사관 인증서'를 9일 수여했다.

이번 제3회 책임수사관 선발에는 전

국 시·도경찰청에서 206명이 응시해 최종 21명이 선발됐으며, 전북청에서는 15명이 응시해 2명이 선발됐다.

특히 2020년 제1회부터 현재까지 전북청에는 총 9명의 책임수사관이 있다.



책임수사관은 수사관 자격관리제에 따른 '예비수사관, 일반수사관, 전임수사관, 책임수사관' 단계 중 가장 높은 단계로, 현재 수사부서 근무자 중 實 수사경력 10년 이상의 전임수사관 자격을 가진 자만이 응시할 수 있다.

책임수사관은 사건기록을 토대로 법리검토 및 수사기록 전반을 분석, 지휘 또는 직접 수행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국수본 주관)을 거쳐 선발 심사를 통해 최종 선발된다.

강황수 청장은 "책임수사관은 최고의 수사역량이 검증된 자적인 만큼 공감받는 수사 활동이 중요하므로, 공명심에 치우치지 않는 진정성 있는 수사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수사 경찰이 되어 주기 바란다"며 "전북경찰은 항상 도민 여러분의 눈높이와 관점에서 생각하고 어려움과 고통에 공감하며 특히, 사회적 약자의 마음을 헤아리는 살림의 치안활동을 실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경찰청, 북한 도발 대비 출동 준비태세 강화

전북경찰청은 최근 북한의 지속된 도발에 대비해, 각 경찰서 '작전부대, 경찰관기동대'에 대해 출동 준비태세를 점검하고, 작전능력 향상을 위해 실질적인 교육·훈련을 강화하기로 했다.

강황수 전북경찰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핵 실험 추진 등 안보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지난 2일부터 9일까지 작전부대의 빈틈없는 대비를 진행하게 했으며, 야간 등 불시에 대간첩 비상 발령을 통한 출동 준비태세 및 상황 발생시 현장 전투능력 점검을 통해 작전부대 준비태세 확립에 중점을 두고 진행했다.

이번 훈련에 참석한 작전부대원은 현재의 대북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비상시 대응계획 수립 및 작전장비 점검, 지속적인 자체 훈련으로 작전초동부대로서 즉응태세를 확립하고 있다.

특히, 경찰특공대는 대간첩·대침투 상황대비 산악지형 및 폐건물 등 적 은거 용의지역 수색·침투훈련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등 작전수행 부대로서의 작전준비태세를 확립하고 있다.

또 전북경찰청은 이번 점검을 통해 나타난 미흡한 점에 대해 전 작전부대원을 상대로 화기화, 전술화 및 현장 전투전술 등에 대한 일제 교육·훈련을 실시해 작전부대원의 역량을 한층 높이기로 했다.

강황수 전북경찰청장은 "철저한 교육·훈련과 사전 준비를 통해 최고의 작전 준비태세를 확립하여 적의 어떠한 위협에서도 도민의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청대대에게 경정전상남(063-280-8061)에게 문의하면 된다.

/김영태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